

2020년 10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유재형(2515)

구제역방역과 과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이용진(2537) / 제공일: 10월 10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 추진상황

- 발생지역 집중소독, 예찰·정밀검사 및 역학조사, 현장점검 등 실시 -

-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, 이하 '중수본')는 10월 9일,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을 실시 중에 있다.
- 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(광역방제기·소독차·軍제독차 등)를 동원해 전국의 양돈농가 6,066호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.
 - 특히 금번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11대의 소독장비(광역방제기 2대, 소독차 4, 軍제독차 5)를 긴급 투입*하여 발생농장과 주변 연결도로 등을 집중소독하고,
 - * 발생 전부터 소독을 위해 운영중이던 6대(지자체 소독차 1, 농협 2, 검역본부 1, 농협 광역방제기 1, 軍제독차 1)에 5대(농협 광역방제기 1, 軍제독차 4)를 추가 투입
 - 최근 1개월간 화천군 내 통행량을 분석하여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4개 도로(약 20km)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였다.



<광역방제기(발생농장 인근)>



<군제독차>



<방역차>



- 10월 9일, 경기·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가 375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.
 - 양돈농가 375호에 대해 돼지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, 현재까지 167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*(10.9일 24:00 기준)하여 검사를 진행중이며,
 - * 10.11일까지 대상농가들에 대한 혈액시료 채취를 완료할 계획
 - 가축방역관의 혈액시료 채혈 과정 중 임상관찰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.
 - 또한 'GPS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'을 활용, 발생농장과 도축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출입한 다른 양돈농가들을 확인하여 사육돼지 예찰을 실시한 결과,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.
- 중수본은 화천군 양돈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하여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기로 하였으며,
 - 강원도 내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·운영하여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키로 하였다.
- 또한 중수본은 10월 10일, 위험도가 높은 야생멧돼지 방역대 (양성개체 발견 10km)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
 - 농식품부 직원으로 구성된 18개 현장점검반은 농장 입구의 차량 소독시설, 울타리 등 소독·방역시설의 설치·작동 여부와 축사 출입구 등 생석회 도포 여부 등 농장방역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.